

에서 열렸다. 도서평론가 이권우씨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홍(웅진 리더스북 대표)·진현중(저술 및 번역가)·박수진(북플리오 편집차장)·김종만(우리교육 영업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거리 문화 축제로 첫 발 내딛어**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출판인회의에 소속된 크고 작은 50여개의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행사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개별 출판사들의 어려운 여건상 며칠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큰 행사를 치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번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을 매개로 출판계와 독자, 지역 주민, 문화단체, 공공기관이 다함께 어우러져 벌인 문화축제란 점이다. 또한,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각 프로그램들이 세심하게 기획·집행됐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기도 했다. 물론 계

획되었던 프로그램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주요 프로그램의 동선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방문객들이 혼란스러워 했던 점 등 다소간의 미숙함은 어쩔 수 없었다. 행사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혜경(사)출판인회의의 회장은 "첫 발걸음이니만큼 올해의 성과들을 잘 정리하고 부족한 점들은 잘 보완해 내년에는 더 내실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첫날 개막식엔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민음사 대표)과 김혜경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두루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박맹호 회장은 이날 부스를 둘러본 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미래로 여행을 하는 기분"이라며 "독서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러 나온 것을 보면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책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취재 김지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인터뷰 김혜경 조직위원장(사)출판인회의 회장**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에듀테인먼트' 한마당  
'책을 통해 출판인, 지역주민, 시민들 어우러져'**



제1회 서울외우북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맡은 (사)출판인회의 김혜경 회장(푸른숲 대표)은 "출판인들이 독자가 있는 현장에 책을 들고 찾아가 거리 축제를 펼친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대 인근과 마포구 일대에는 출판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대략 1,600여개 정도가 몰려 '출판의 중심지'라 할 수 있죠. 홍대 부근은 본래 문화적인 동네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 거리에 책을 전시하지는 의도죠"

김 위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가족이 함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유익한 '에듀테인먼트'의 성격을 띤 행사"로 규정했다. 즉 교육적이면서도 오락적인 성격을 가지는 행사의 모델이란 얘기다. 특히 출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홍대 부근의 클럽과 상인들, 지자체와 함께 협력한 점을 큰 성과로 꼽았다.

"길을 막고 주차공간을 차지해서 주변 상인들은 불편한 점이 많았을텐데도 대부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어요. 또 서울시와 마포구에서도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란 점을 높이 사 다방면으로 후원해 주었죠.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첫 행사인 만큼 홍보 부족과 운영상 미숙함도 드러났지만 대체로 무난한 편이라는 주변의 평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출판사들이 규모가 작아서 인력을 배치하고 재정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함께 축제를 즐겨서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출판사들도 현장에서 독자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책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대체로 흡족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리 축제로 자리잡도록 힘쓰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존의 '저자가 학교를 찾아가는 행사'를 꾸준히 계속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심어주는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김지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